

광주 골목형상점가 선도 도시 ‘우뚛’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 지역서 현장 목소리 경청
“정책지원 확대 노력”...북구 지정 선포식 참석도

광주가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의 첨병인 ‘골목형상점가’ 선도 도시로 우뚝서고 있다. 전국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약 43%가 광주에 집중 돼 있을 정도로 지정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 광주를 찾아 제도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광주에

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민생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광주 5개 자치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들과 함께 예로 및 건의사항 등 다양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을 비롯해 광주 동구 대인제분 골목형상점가, 광주 서구

화계 상인회 골목형상점가, 광주 남구 용대로 골목형상점가, 광주 광산구 임방울거리 골목형상점가 등 총 16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및 온누리상품권 홍보 방안, 골목형상점가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고 상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상인회장은 “지정 골목형상점가의 청사진이 막막했었는데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소진공 광주 전남제주지역본부에서 마련한 골목상권 우수모델 벤치마킹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공단에서 골목형상

점가 역량 강화와 지속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 박성호 이사장은 광주 북구 전남대 상대 골목형상점가 일원에서 열린 ‘북구 전 지역 골목형상점가 지정 선포식’에 참석했다. 선포식은 북구의 전국 최대 규모 골목형상점가 지정 (123개)을 기념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전남대 상대 골목형상점가가 추척하는 ‘금·토 야시장’ 개막식과 연계해 진행됐다. 앞서 북구는 지역 내 모든 상점가



(123곳·점포 1만3440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전국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약 43%를 광주에서 지정한 것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5개 자치구의 노력과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정책 확대와 더 나은 골목상권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ECONOMY

2025년 9월 8일 월요일

고용부 산업 맞춤 훈련 평가

한국광기술원 ‘최우수기관’

한국광기술원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24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사업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을 통해 재직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국가 지원 인력양성 사업이다. 한국광기술원은 광융합산업을 중심으로 한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중소·중견기업 기술 애로 해소 지원,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에 기여했다. 특히, 광융합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과 AI 기반 디지털 학습 콘텐츠, ESG 대응 과정,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광융합 핵심 기술 훈련을 운영하며 혁신적 성과를 인정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한국광기술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차례 성과평가 중 3회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광융합산업 특화 교육 역량은 물론 지역 산업과 기업의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한 운영체계, 교육 효과성, 높은 기업 만족도까지 인정받은 성과로 분석된다. 한국광기술원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지역 산업계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체계를 꾸준히 확보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광융합산업뿐 아니라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의 허브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금타, 영국 럭비팀 ‘레스터 타이거즈’ 후원

2030년까지 유니폼 로고 노출·공동 프로모션 등 진행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유럽 영국 럭비 구단인 ‘레스터 타이거즈 (Leicester Tigers)’ 팀과 후원 계약을 체결하고 공식 스폰서로 나선다.

금호타이어가 오는 2030년까지 5시즌 동안 후원하는 레스터 타이거즈는 잉글랜드 레스터를 연고지로 하는 전통 깊은 럭비 유니언 구단으로, 1880년에 창단된 이후 프리미어십 럭비(Premiership Rugby)의 최상위권을 지켜온 명문 팀이다. 유러피언 럭비 챔피언스컵 2회 우승과 프리미어십 다수 우승을 기록하며 영국은 물론 유럽 전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럭비 구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후원 협약을 통해 레스터 타이거즈 유니폼 상의에 금호타이어 로고를 노출하고, 팀의 홈경기장인 ‘매티울리 우즈 웰로드 로드 스타디움(Mattioli Woods Welford Road Stadium)’에서 열리는 리그 경기 동안 경기장 사이드라인 광고와 홈



페이지, SNS 등에 금호타이어 브랜드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레스터 타이거즈와의 공동 이벤트, 판촉 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하고 레스터 타이거즈의 더터온 글로벌 팬 층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할 계획이다. 이강승 유럽본부장·부사장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영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금호타이어의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브랜드 프리미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4곳 중 1곳 ‘부실 위험’

평균 연체율 7.85%·연체액 9787억

광주·전남지역 새마을금고 4곳 중 1곳은 건전성에 ‘위험’ 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경영지표에 따르면 광주·전남 금고의 평균 연체율은 7.85%로 전국 평균(8.37%)을 밑돌았다.

특히 순고정하여선비율 9%를 초과한 위험등급 금고는 24곳으로 전체의 24.49%를 차지했다. 순고정하여선비율은 전체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로, 9%를 넘으면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은 ‘위험’ 상태로 판단한다.

부실비율과 연체율 최고치는 각각 23.2%, 24.1%를 기록한 K금고였다. 전국 단위로 보면 1267개 금고 중 절반에 가까운 623곳(49.2%)이 고정하여선비율 8%를 초과했다. 전북이 15.3%로 가장 높았고, 부산(13.45%), 경기(11.95%), 대구(11.77%) 등 순이었다. 광주·전남 금고는 전국 평균(10.73%) 보다 낮은 9.04%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광주·전남 금고 연체액이 9787억원에 달했다. 전국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액은 15조2124억원으로, 경기(3조8000억원), 서울(2조8532억원), 대구(1조2981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로또 1등 24명...당첨금 각 10억7000만원

제118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4, 12, 19, 22, 2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9’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24명으로 10억746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

치한 2등은 111명으로 각 387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춘 3등은 3713명으로 116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춘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8만831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90만1056명이다.

연합뉴스



광주신세계 “캐리어 타고 여행 떠나세요” 광주신세계는 본관 지하 1층 연결통로에서 오는 14일까지 ‘타고가요 캐리어’ 팝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새롭게 탄생한 타고가요 캐리어는 캐리어와 트라이크를 결합한 신개념 상품이다. 아이가 캐리어에 탑승 가능하며 캐리어를 분리할 수도 있어 필수 육아템으로 자리 잡았다.

사진제공=광주신세계

광양경제청-킹톱스, 500만달러 규모 투자 협약

신규 설비 2개 라인 증설...중국·동남아 수출 확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중국 광둥성 위생용품협회를 방문해 위생용품 기업과 500만달러 규모의 증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양만권에 입주한 외투기업 킹톱스(KINGTOPS)가 기존 1000만달러 투자에 이어 신규 설비 2개 라인을

증설하고, 생산한 여성용 위생용품을 중국·타이완·동남아 등 해외시장에 확대 수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용 킹톱스 대표는 투자협약식에서 “광양경제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밀착 서비스 덕분에 증설 투자를 결정했다”며 “광양에서 제조한 제품을 해외시장

으로 확대 수출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청은 이번 투자협약에 앞서 중국 광둥성 위생용품협회 260개 회원사 회장을 만나 광양만권의 해외 수출 최적지를 홍보하고 투자 유치를 요청했다. 광양경제청 투자유치단은 사면시에서 열리는 제25회 중국국제투자무역상담회에 참가해 광양만권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간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노동부, 17개 시도 임금체불 현황 발표

지역노동자 1만974명 1153억원 못 받았다

광주 4406명 674억·전남 6568명 481억...제조·건설업 집중

올해 7월 기준 광주·전남지역에서 1만974명의 노동자가 1153억여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17개 시·도별 체불현황을 분석,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용을 보면 올해 7월까지 광주의 임금체불 총액은 674억5500만원, 체불인원은 4406명이다.

비중으로 보면 광주는 5.0%로 전국에서 경기(26.4%), 서울(25.6%), 부산·경남(각 5.6%)에 이어 높다.

같은 기간 전남은 6568명의 노동자가 481억6500만원을 체불당했다.

전국적으로 임금체불 총액은 1조3421억원,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만3000명이 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원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4만3200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이어 서울로 4만7000명의 노동자 임금 3434억원이 체불됐다.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건설업에서 체불액이 많았고,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컸다. 그 외에는 제조업·건설업 비중이 높았다.

노동부는 임금 체불이 중앙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안도길 초청 포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협동조합 이사장, 협·단체장 등 기업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도길 국회의원 조찬포럼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중소기업인들에게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경영 전략을 제정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 총괄을 역임하고 현재 제22대 국회 예결특위위원

으로 활동 중인 안도길 의원이 특별강연을 맡아 새 정부의 8대 성장 프로젝트를 비롯한 지역 미래혁신산업육성 등 심도있는 내용을 전달했다.

임경춘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새 정부의 방향을 참고, 경영 방향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으로 활동 중인 안도길 의원이 특별강연을 맡아 새 정부의 8대 성장 프로젝트를 비롯한 지역 미래혁신산업육성 등 심도있는 내용을 전달했다.

임경춘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새 정부의 방향을 참고, 경영 방향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영양=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